목회데이터연구소
MINISTRY DATA INSTITUTE

numbers 제 48호

2020. 05.22

주요 내용

1.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 퇴직자들의 삶
2.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numbers

2020 일반사회통계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 퇴직자들의 삶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삶! 평생 사랑하는 가정을 먹여 살리려 밖에서 열심히 일하다 어느새 나이가 차면 퇴직할 시기가 온다. 퇴직한 후에는 가장의 역할을 못한다는 심한 퇴직 후유증을 겪는다. 아내로부터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들을 때, 아내가 자신의 상실감을 몰라줄 때, 아내가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할 때, 경제적인 이유로 취미 생활을 반대할 때, 돈 벌어 오라고 강요할 때 우리의 퇴직자 아버지는 마음이 무너진다.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라는 말이 있다. 평생 가장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을 말한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경우 소득 크레바스 기간은 평균 13년으로 조사됐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퇴직 후 이 13년의 어두운 터널을 넘어야 한다. 생활비도 줄이고 집을 도시에서 외곽으로 이사도 가야 한다. 그래도 퇴직자의 60%가 현재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런 궁핍한 삶에 그래도 퇴직 후유증을 이겨내고 즐겁게 사는 이들이 있다. 조사 결과 '가족의 위로/격려/응원'과 '다시 일을 시작하는 것'이 퇴직자들의 긍정적인 삶의 원천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48호는 최근 발표된 하나금융그룹 100년행복연구센터의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보고서를 중심으로 **퇴직자 삶의 실태를 살펴보고, 20세 이상 성인 교인 중 27%를 차지하는 교회 내 퇴직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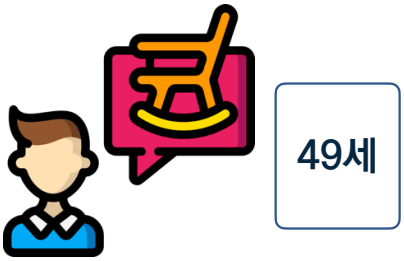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자, 소득 크레바스 기간, 평균 13년

-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란 직장에서 퇴직하여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공백 기간'으로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경우, 가장 오래 다닌 직장(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나이가 평균 49세이며 그 이후 13년 간의 '소득 크레바스' 기간을 건너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만 20세 이상 개신교 인구 중 소득 크레바스 기간(평균 13년)에 속해 있는 사람은 27%를 차지함***

[그림] 가장 오래 다닌 직장 퇴직 연령*



[그림] 소득 크레바스 기간**

*자료 출처 : 통계청, '2019 5월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 2019.07.23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자료 출처 : 통계청, '2015 인구 센서스 조사, 연령별 개신교 인구'

● 퇴직 후 생활비 29% 줄였지만, 그래도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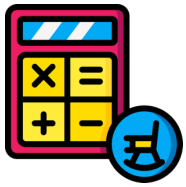
- 퇴직자들은 생활비를 퇴직 전보다 29%를 줄여 월평균 252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 퇴직자 10명 중 6명 정도는 현재 생활비 마련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음

[그림] 퇴직 후 생활비

퇴직 전 대비
생활비 하락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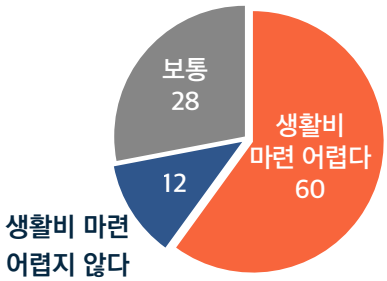
29%

현재 월 평균 생활비



252만 원

[그림] 생활비 마련 어려움 정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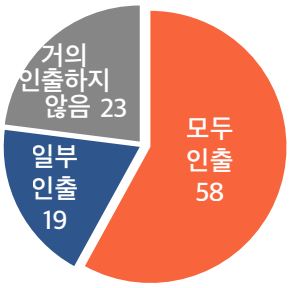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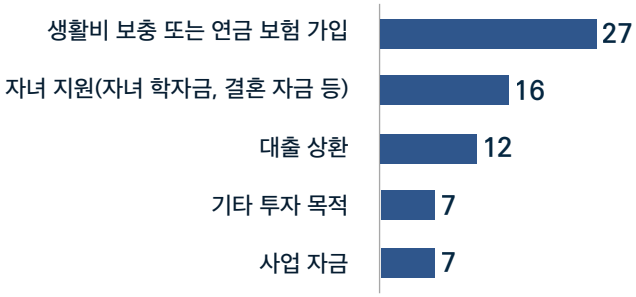
● 생활고로 퇴직자의 절반 이상(58%)이 퇴직금 모두 인출!

- 퇴직자들의 58%가 퇴직금을 모두 인출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 퇴직금 사용처는 생활비(연금보험 가입), 자녀지원, 대출 상환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퇴직금 인출 여부 (%)



[그림] 퇴직금 사용처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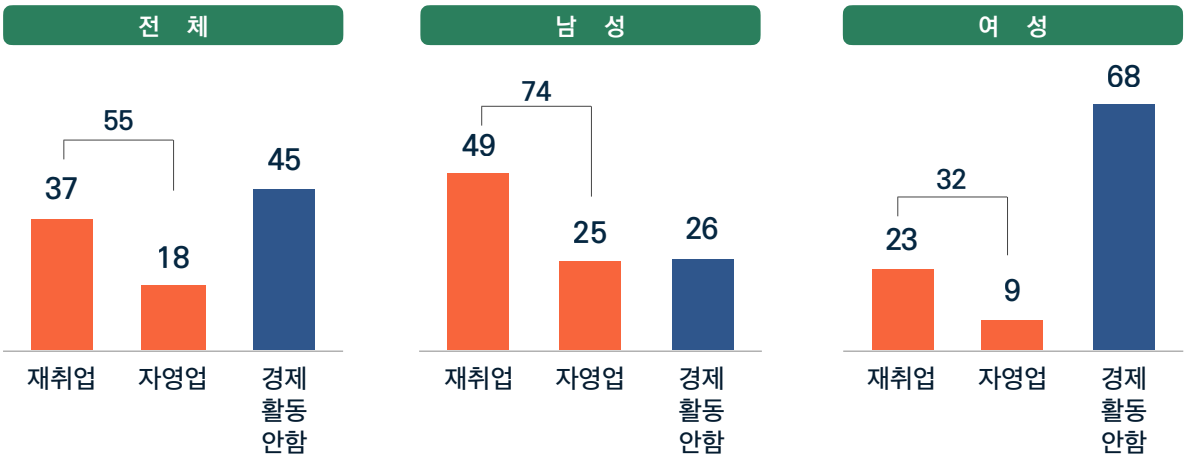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2 퇴직 후, 55%만 재취업 성공함

- 퇴직 후 경제 활동 여부에 대해 '재취업' 37%, '퇴직 후 자영업' 18%, '경제 활동 하지 않음' 45%로 퇴직자 절반 가까이가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재취업(창업) 비율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는 74%인데 반해, 여성은 32%로 나타남

[그림] 퇴직 후 경제 활동 여부 (%)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 재취업한 직장 소득, 퇴직 전 직장 소득의 53% 수준!

- 재취업 성공까지 구직 기간은 평균 11개월로 나타남
- 오랜 기간에 걸쳐 취업 노력을 한 끝에 재취업에 성공한 퇴직자들의 직장 소득은 퇴직 전 직장 소득의 53%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재취업 성공까지 구직 기간(평균)

11개월

[그림] 퇴직 전 소득 대비 재취업 직장 소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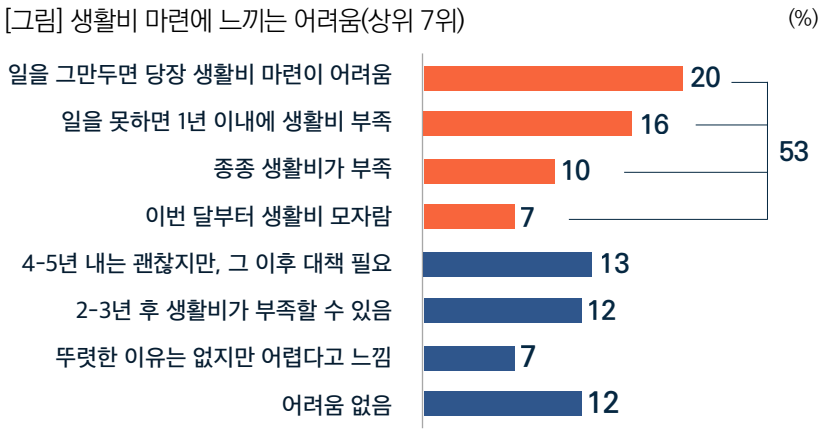
53%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 퇴직자의 53%가 일을 그만두면 당장 또는 1년 이내 생활비가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감 속에 있음

-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 정도를 질문하였는데, 무려 53%가 현재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이거나 일을 못 할 경우 1년 이내 생활비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함
-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4월 취업자수가 작년 4월 대비 IMF 이후 처음으로 48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는데, 퇴직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추정됨

[그림] 생활비 마련에 느끼는 어려움(상위 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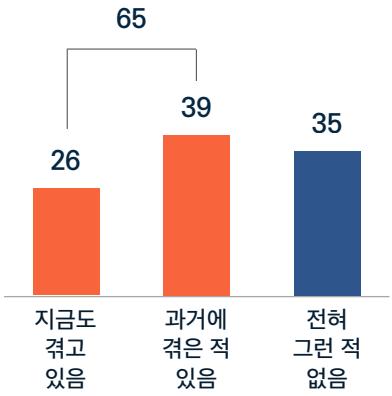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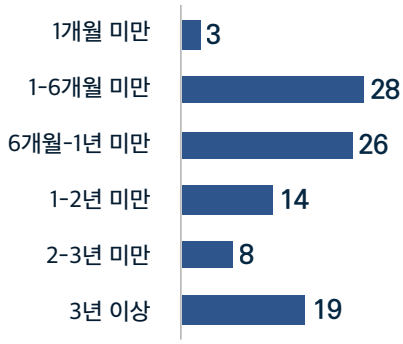
3 퇴직자, '퇴직 후유증 겪는다' 65%

- 퇴직 후유증 경험 여부에 대해 '과거에 겪은 적 있음' 39%, '지금도 겪고 있음' 26%, '전혀 그런 적 없음' 35%로 전체 퇴직자의 3명 2명 정도(65%)가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나타남
- 퇴직 후 1년 안에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 3년 이상 계속 겪을 가능성이 큼

[그림] 퇴직 후유증 경험 여부 (%)



[그림] 퇴직 후유증 지속 기간(1-2위 순위)** (%)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후유증 경험자 : 654명 대상

● 퇴직 후유증 이유, 남자는 '가장 역할 압박감'(62%), 여자는 '성취와 지위 상실감(47%)

- 퇴직 후유증에 대한 이유가 성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남자는 '가장 역할 압박감'(62%)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고, 여자는 '성취와 지위 상실감'(47%)이 가장 크게 작용함

[그림] 퇴직 후유증 겪는 이유(전체, 1+2 순위) (%)

[표] 퇴직 후유증 겪는 이유(성별, 상위 3위) (%)

순위	남성	여성
1위	가장 역할 압박감 62%	성취와 지위 상실감 47%
2위	성취와 지위 상실감 43%	자아 실현 하락 39%
3위	가족과 소통 어려움 27%	가족과 소통 어려움 29%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4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을 퇴직한 직후의 남성, **가족의 '위로/격려/응원'이 퇴직 후유증 극복하는 데 결정적!**

- 앞에서 가장 오래 다닌 직장, 즉 생애 주된 직장을 퇴직한 평균 연령이 49세였는데, 이 연령대 즉 50대 초반 연령 남성의 경우 극심한 퇴직 후유증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를 극복한 남성을 대상으로 후유증 극복 계기를 질문한 결과, '가족의 위로/격려/응원'이 47%로 1위로 응답돼, 남성의 경우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음

[표] 과거 퇴직 연령대별 남성의 후유증 극복 계기(1위, 2위) (%)

퇴직자 연령	1위	2위
40-49세	창업이나 재취업을 하면서 58%	**가족의 위로/격려/응원 28%**
50-54세	**가족의 위로/격려/응원 47%**	창업이나 재취업을 하면서 45%
55세 이후	창업이나 재취업을 하면서 46%	**가족의 위로/격려/응원 38%**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 퇴직 후유증을 겪은 후 현재 마음 상태, 재취업한 퇴직자가 상대적으로 긍정적 비율이 더 높음

- 퇴직 후유증을 겪은 후 현재의 마음 상태를 알아본 결과, 재취업자〉자영업자〉경제 비활동자 순으로 즐겁고 기분좋은 상태 비율이 높음
- 다시 일을 시작했을 때, 자영업자보다는 재취업자가 즐겁고 기분좋은 상태 비율이 높은 점이 주목할 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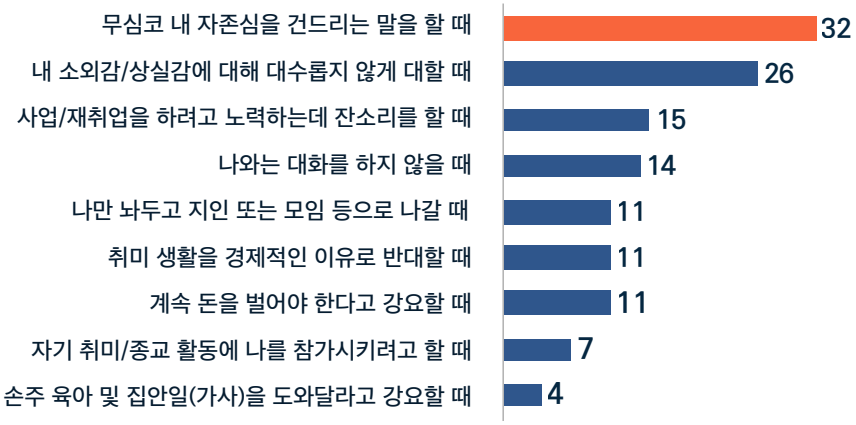
[그림] 퇴직 후유증을 겪고 난 후 현재 마음 상태 ('기쁘고/즐겁고/기분 좋다' 비율) (%)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5 퇴직 후, 배우자가 '무심코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을 때'(32%)가 가장 섭섭해!

- 퇴직 후 배우자가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할 때, 나의 상실감/소외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섭섭함을 가장 느낌

[그림] 퇴직 후 배우자에게 섭섭함/불만을 느낀 때 (상위 9위) (%)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 퇴직 후, 배우자가 '내 건강을 챙겨줄 때'(33%)가 가장 고맙다!

- 퇴직 후 배우자가 건강을 챙겨줄 때, 그동안의 노고를 칭찬해 줬을 때 고마움을 가장 크게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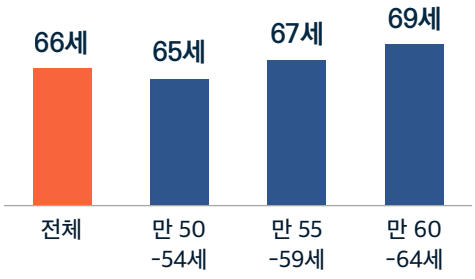
[그림] 퇴직 후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느낀 때(상위 9위) (%)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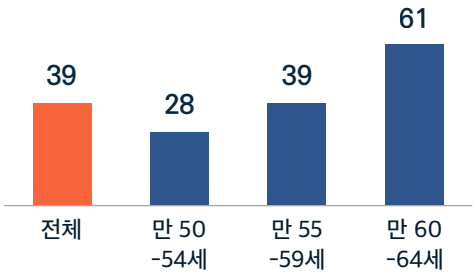
6 완전 은퇴 희망 시기 : 평균 66세

- 퇴직자가 생각하는 완전한 은퇴할 나이는 평균 66세로 나타났으며, 나이가 올라갈수록 완전 은퇴 희망 시기도 조금씩 늘어남
- 특히 70세 넘어도 일하겠다는 비율은 현 연령이 올라갈수록 크게 상승하는데, 60-64세 연령층의 경우 무려 61%가 70세 넘어서도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임

[그림] 완전 은퇴 희망 시기(평균) (세)



[그림] '70세 넘어도 일하겠다' 비율 (%)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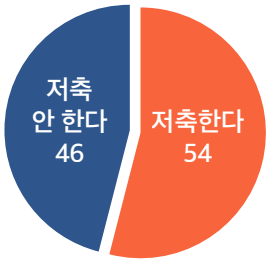
● 퇴직자의 금융 자산 소진 예상 시기 : 평균 71세

- 퇴직자가 갖고 있는 금융 자산이 언제가는 소진될텐데 소진 시기를 질문했는데, 평균 71세로 나타남
- 2018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남자 80세, 여자 86세인데(통계청, '2018년 생명표' 2019.12), 이를 기준으로 금융 자산이 다 소진된 후에도 앞으로 1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므로, 노후를 위해 저축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질문한 결과,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하고 있는 퇴직자는 54%이며, 월 평균 110만 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금융 자산 소진 예상 시기

평균 71세

[그림]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여부 (%)



[그림] 월 저축액(저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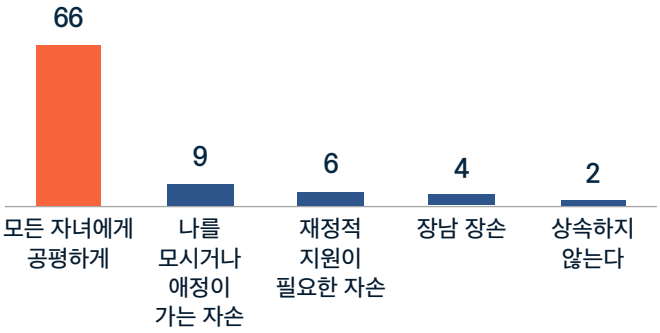
110만 원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 상속/증여 대상자,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주겠다!

- 상속/증여 대상자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았는데, 퇴직자들은 '모든 자녀에게 공평하게 주겠다'가 66%로 압도적으로 높게 응답함
- 장남/장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인식은 4%로 매우 적은 비율을 보임

[그림] 상속/증여를 주고 싶은 사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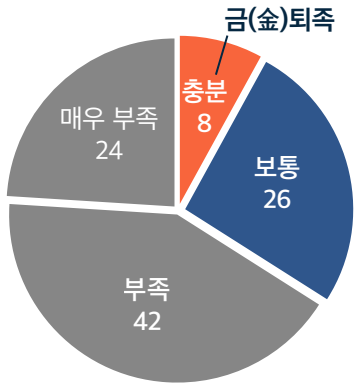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7 금(金)퇴족, 퇴직자의 8%

- 노후 자금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에 대해 '매우 부족' 24%, '부족' 42%, '보통' 26%, '충분' 8%로 충분하게 준비된 퇴직자는 8%에 불과한데, 이렇듯 노후 자금이 충분한 사람들을 가리켜 '금(金)퇴족'이라 부름
- 전체적으로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는 퇴직자는 66%에 달하는데,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24%로 4명 중 1명가량은 노후 준비가 거의 되어있지 않은 노후 빈곤층으로 판단됨

[그림] 노후 자금의 충분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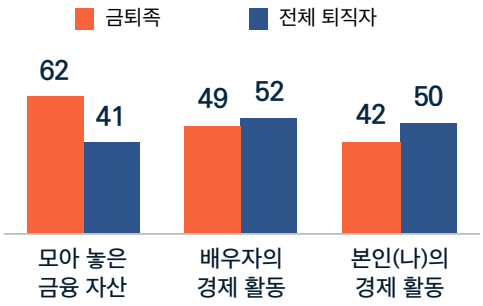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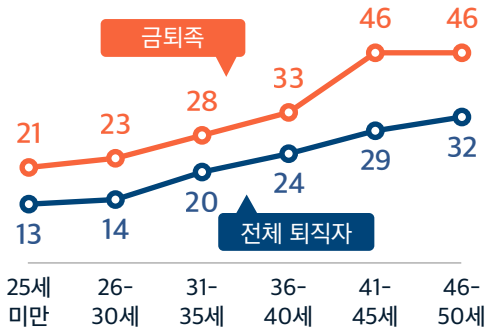
● 금퇴족 특징, 일반 퇴직자보다 젊었을 때 연금 활용도가 높음

- 금퇴족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일반 퇴직자와 다소 다른데, 일반 퇴직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경제 활동에 의존하는 반면, 금퇴족은 모아 놓은 금융 재산 특히 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연금 등) 의존도가 높음
- 금퇴족은 과거 젊었을 때부터 연금 활용도가 일반 퇴직자보다 더 높은 특징을 보임

[그림] 생활비 마련 하는 방법
(일반 퇴직자 vs 금퇴족, 상위 3위) (%)



[그림] 과거 연령대별 연금 활용 비중(1-3위) (%)



*자료 출처 : 하나금융그룹/100년행복연구센터, "대한민국 퇴직자들이 사는 법" 2020.05.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생애 주된 직장 퇴직 후 국민연금 수급 이전인 50대 이상 퇴직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19.11~12.)

8 시사점

퇴직자가 넘쳐나고 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더 많이 일을 한다. 2018년 기준 OECD 회원국의 임금 근로자 연간 근로 시간을 보면 우리나라는 1967시간으로 당해 통계가 작성된 국가 중 멕시코(2347시간), 코스타리카(2209시간), 칠레(1999시간), 러시아(1988시간)에 이어 다섯 번째로 길었다. 독일, 일본, 미국 같은 주요국의 연간 근로 시간이 각각 1305시간, 1706시간, 1792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도 근로시간이 매우 긴 편이다.

퇴직자들은 불안하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만49세가 되면 가장 오래 다닌 직장(생애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한다. 예전 어느 광고에서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고 권유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퇴직자의 8%만 노후 자금이 충분하다(10쪽)고 할 정도로 노후 대책이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여유롭게 떠날 수 있을까? 그래서 퇴직 후 재취업, 창업 등을 고려하지만 55%만 재취업하거나 창업을 하고 나머지 45%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다(4쪽) 재취업을 했다고 해도 그 나이에 양질의 직장을 얻기는 만만치 않은 일이라서 대개 전 직장의 절반 정도의 소득을 받는다(5쪽) 퇴직금을 쏟아 부어 창업한 퇴직자도 경험이 없으니 실패하기 일수고 퇴직금마저 날려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퇴직자들의 65%는 퇴직 후 후유증을 앓고 있다. 이 후유증의 요인은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한다는 압박감'(45%)과 '나의 성취와 사회적 지위를 상실한다는 불안감'(43%)이 가장 크다(6쪽). 젊어서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 끝은 '삶의 즐거움과 여유로움'이 아니라 '현재의 압박감'과 '미래의 불안감'이다.

퇴직자들은 위로가 필요하다

사회적 박탈감을 겪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자존감이 떨어진 퇴직자에게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만 20세 이상 개신교인 중 퇴직 크레바스 기간에 속해있는 사람이 27%나 된다(3쪽). 비록 경제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본인이 무가치한 존재가 아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함을 알게 해야 한다. 가족을 위해 일한 수고를 평생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네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교회가 도와야 한다.

퇴직자들이 교회에서 주체적으로 할 일을 마련해 주는 것도 퇴직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젊어서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면 퇴직 후에는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며 자신이 얼마나 유익한 존재인지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퇴직자가 행복하면 본인과 가족이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게 된다. 직장에서는 퇴직하였지만 교회와 사회에서는 퇴직하지 않은 존재로서 행복한 퇴직자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numbers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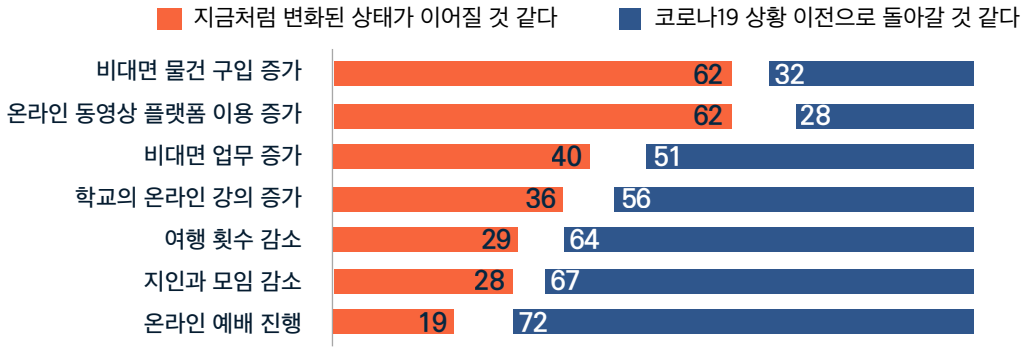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 포스트 코로나, 언텍트 사회 전망

● 우리 국민,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구매 증가'와 '동영상 플랫폼 이용 증가'는 지금처럼 변화된 상태를 유지할 것(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비대면(언컨텍트) 문화가 우리의 일상 생활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여러 항목을 제시하고 각 항목별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지, 아니면 변화된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질문한 결과, '비대면 물건 구입 증가'(62%)와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증가'(62%) 항목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의 변화된 상태가 이어질 것 같다고 응답이 높았음
- 한편,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야로는 '온라인 예배'(72%), '지인과 모임' (67%), '여행'(64%), '학교 온라인 강의'(56%), '비대면 업무'(51%) 등으로 나타남

[그림] 언택트 사회 분야별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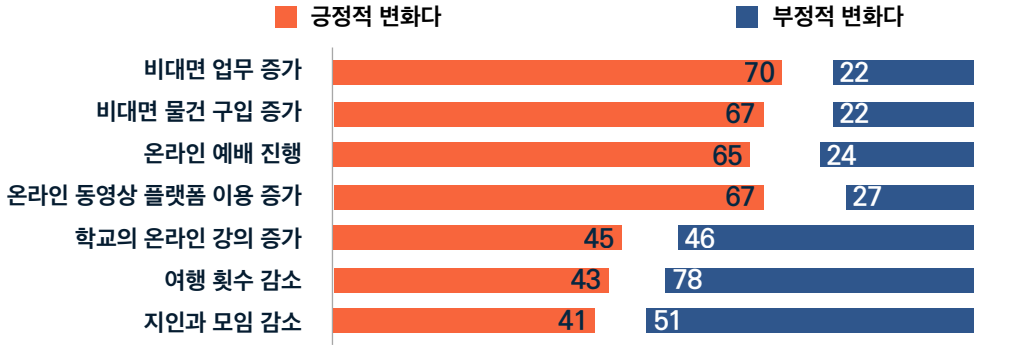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코로나19 6차 인식조사' 2020.05.06.(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24-27)
**질문 :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 아래 각각의 변화 양상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변화된 상태로 유지될 것 같습니까?

● 코로나 기간 중 '온라인 예배', '비대면 업무', '비대면 물건 구입', 사회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변화다!

- 우리 국민은 코로나 기간 중 '비대면 업무 증가'(70%), '비대면 물건 구입 증가'(67%), '온라인 예배'(65%),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 증가'(60%)는 사회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변화라고 인식하고 있음

[그림] 언택트 사회 분야별 평가 (%)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코로나19 6차 인식조사' 2020.05.06.(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24-27)
**긍정적은 '매우+약간', 부정적은 '매우+약간' 비율임
**질문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다음 각각의 일상생활 변화가 우리 사회 발전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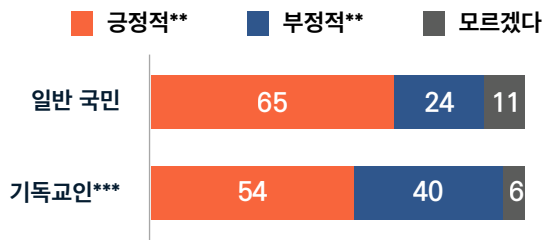
● 기독교인(개신교+천주교)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예배가 사회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변화라 인식!

- 온라인 예배에 대해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온라인 예배로 변화된 상태가 계속 이어질지에 대한 응답을 종교별로 살펴보면, '기독교인(개신교+천주교)'의 19%는 온라인 예배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변화된 상태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함
- 또한 온라인 예배가 사회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변화라는 인식은 '일반 국민' 65%, '기독교인(개신교+천주교)' 54%로,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예배가 사회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한국교회가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으로 보임

[표] 온라인 예배의 지속 여부 예상(종교별) (%)

	코로나19 상황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다	지금처럼 변화된 상태가 이어질 것 같다	잘 모르겠다
기독교 (개신교+천주교)	77	19	4
불교 등 기타 종교	69	21	9
종교 없음	70	18	12

[그림] 온라인 예배의 사회 발전에 끼칠 영향 (일반 국민 vs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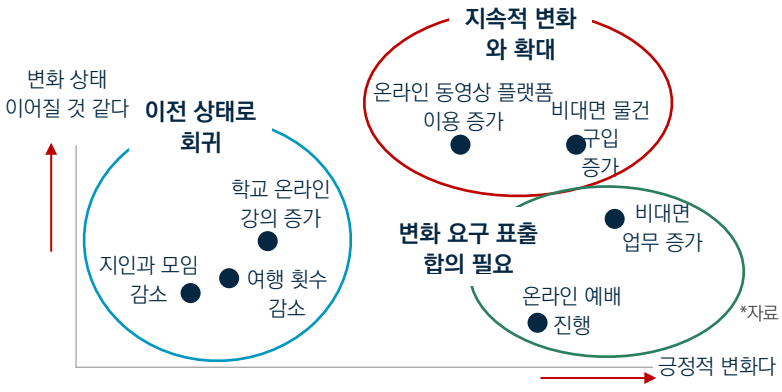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코로나19 6차 인식조사' 2020.05.06.(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24-27)
**긍정적은 '매우+약간', 부정적은 '매우+약간' 비율임
***기독교인 : 개신교인+천주교인

● 변화된 상태 지속 : 비대면 물건 구입과 동영상 플랫폼 이용 변화 요구 표출됐지만 합의 필요 : 비대면 업무와 온라인 예배

- 본 조사를 진행한 한국리서치는 앞의 현재 변화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응답과 이러한 변화에 대해 긍정적 응답의 두 차원을 종합해 2차원 산포도를 작성하였는데,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됨
- 첫 째는 '이전 상태로 회귀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학교 온라인 강의', '지인과 모임', '여행 횟수'를 들 수 있음
- 둘 째는 '지속적 변화와 확대 가능성이 높은 항목'으로 '비대면 물건 구입'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이 여기에 속함. 오프라인 매장, 극장, 공연계 등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셋 째는 '변화 요구 표출 및 합의 필요 항목'으로 '비대면 업무'와 '온라인 예배'를 들 수 있는데, 국민들의 변화 요구가 표출되긴 했지만 과거로 회귀 의견과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가 필요한 항목들임

[그림] 비대면(언택트) 사회 전망과 평가 종합 산포도



*자료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코로나19 6차 인식조사' 2020.05.06.(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0.04-24-27)

2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한국인의 '국가 자부심' 상승, 80%
한국일보_2020.05.16.

5060세대 온라인쇼핑에 눈뜨기 시작(19%→31%)
조선일보_2020.05.20.

BTS도 헌 옷 사 입어…코로나 불황 속 쑥쑥 큰 중고시장
중앙일보_2020.05.16.

언컨택트 시대 수혜주, 네이버 환산 주가 1000만원 돌파
세계일보_2020.05.20.

1~4월 실직자, 역대 최대 (207만명)
동아일보_2020.05.18.

한국 직장인 절반 "실업 공포"(딜로이트그룹, 13개국 조사)
매일경제_2020.05.19.

학부모 10명 중 7명 "온라인수업으로 교육 격차 커질 것"
경향신문_2020.05.20.

54조원대 온라인 불법도박판 실태 - 청소년/청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한겨레_2020.05.20.

문닫는 20대 국회 실적 평가
머니투데이_2020.05.20.

아베 정부, 레임덕 빠졌나…코로나 대응 실패에 비난 여론 들끓어
글로벌이코노믹_2020.05.20.

스토리가 있는 기사

불륜 드라마의 사회학
중앙일보_2020.05.21.

코로나가 지구촌 경제적 불평등 심화시킨다
세계일보_2020.05.16.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 • 심리 관련 조사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연간)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 • 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 • 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문의 : 02-322-0726,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